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10월 20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김영신 ☎440-3851 • 담당자 채홍기 ☎440-38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나선다 - 10월 20일,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 - - 누적 적자 250억 원에 달해, 경영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기대 -	
--	--

인천시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월미바다열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월미바다열차 개통 이후 운영 적자(연간 60억 원)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수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0일 월미공원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10월 8일 개통 후 64만여 명이 이용했다. 일평균 이용 인원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적이었던 2021년 386명에서 2022년 790명, 2023년 89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휴일 및 공휴일에는 평균 이용 승객이 1,400명이 넘을 정도로 매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평일에는 596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개통 이후 일 평균 이용 인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운송수지 악화로 월미바다열차의 현재 누적 적자액은 250억 원에 달해 운영수지 개선을 통한 적자 폭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는 운영개선, 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시설개선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위촉하고 연말까지 경영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미바다열차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 시설물 디자인 개선, 이용 요금 차별화 등 분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월미바다열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개선 자문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월미권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